

제14차 Asia Society 서울회의 기조연설

-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

- 일 시 : 2004. 5. 14(금) 10:45-11:00
- 장 소 : 신라호텔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아시아 경제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다우존스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 14차 아시아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는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시아 소사이어티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유럽연합이 확대된 유럽연합으로 거듭 났습니다. 새로운 유럽의 탄생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한편으로 우리 동북아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습니다.

근대이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동북아 지역은 이제 세계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로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 한반도의 위치는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주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내 국가간 평화와 협력을 토대로 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킨 평화변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제도화해 나가려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 한국민이 처해있는 경제와 안보 현실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은 4700만 인구의 절반이상이 비무장지대로부터 70마일 이내의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61%나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는 수출과 증시의 안정, 해외투자 유입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억지(peace-keeping) 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peace-building) 나가려는 이유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남북관계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나가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긴장이 고조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관계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속에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틀, 즉 6자회담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특히 엇그제부터는 제3차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회의, 그리고 앞으로 개최될 6자회담에서는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논의가 진행되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4.22 북한에서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는 같은 동포로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민간단체, 국제사회의 지원과 연계하여 상황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도와 나갈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내부 상황이 좀 더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90년대 이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은 외부의 협력과 지원이 없이는 해소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북한이 외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혁과 개방의 문을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체제 불안감 때문입니다.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 북한이 당면한 「변화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북한이 불안감을 최소화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협력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북한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평화정착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입니
다만, DMZ를 넘나드는 경제사업이라는 점에서 「peace
building projec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 나오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기점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를 기대합니다.

장차 외국 기업들도 입주하여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변화를 다루는 세계 우수 언론의 기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지난 5-6년 동안 경제협력이 앞서가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배급제를 통한 상품유통보다 시장기능을 통한 상품 유통의 비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실리주의적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브코르가 즈가디코 으리이 이드무자가 지외디느 교저에서 주민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용천역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과 국제사회가 보낸 온정도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직도 북한의 정치·군사분야에서의 변화는 미흡합니다. 군대에 의한 정치, 대남 전략노선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국, 베트남 등의 전례를 볼 때 북한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추세는 이제 되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양주재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도 동감하고 있다고 홍콩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4. 5.13일자는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 분야의 변화는 사회·문화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종국적으로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될 것입니다.

핵문제로 인한 긴장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대외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400명 규모의 시장 경제 및 법제 연수단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도 지난달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중국의 변화에 대해 평가하였고, 중국의 농업개혁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도 이제 조심스럽지만 고립을 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변화가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체제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외부와의 경제협력,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가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개최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우리의 거듭된 설득으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북한은 잇그제 전화통지문을 통해 5.26 금강산에서 제1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지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번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당면하여 쌍방 군대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나아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문제도 다루는 틀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간 경제협력에 상응하는 군사분야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 한반도의 평화가 더욱 공고히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협력이 경제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때, 한반도, 아시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은 더욱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화의 침묵과 레일을 깔고, 번영의 열차를 출발시키는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아시안 경제포럼이 이러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포럼을 주최하신 아시아 소사이어티와 다우존스사에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